

선진국 진입을 위한 소고 (일본 방문 후기)

“

향후, 우리가 진정 선진국을 향하여 진전을 원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똑같은 질문과 자료요구”의 반복을 피하는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이다.

”



인하대학교수 채재우
011-228-3507 fire@inha.ac.kr

학교근처에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울타리를 치고 공사차량들이 들락거린 지도 오래이다. 그런데도 도무지 건물이 올라가질 않는다. 어느 날 차량 출입구 안으로 내부를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간 얼마나 깊이 지하로 파내려가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놀랐다. 기초를 깊이 그리고 든든히 해야지만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다시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발전을 했다지만, 아직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고부가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IT산업도 핵심 부품이나 기술들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삼성전자가 순익을 낸수록 일본은 더욱 살찐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내에는 점점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중소부품 소재 회사들이 자리 잡을 틈이 애초부터 사그러지는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고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외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으로 대변되는 경제의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본인은 지난달 일본의 저력, 아니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껴볼 생각으로 평소 그리 달갑게 생각 않는 일본 방문을 했다. “장님이 꼬끼리 만지기”이겠지만 나름대로 소중한 경험을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일본의 한 연구소에 방문했을 때 일이다. 그곳은 이름이 잘 알려진 연구소인



표 / 준 / 논 / 단

지라 한국방문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절차대로 연구소 소개 책자들과 동영상 상영 및 몇 실험실 탐방으로 방문일정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곳 지인은 본인이 듣기에 낯 뜨거운 얘기를 건넨다. 한국 방문객들은 요구하는 자료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하기가 편하면서도 지루하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의 같은 기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시종일관 똑같은 데에는 "안타까운" 생각조차 든다고 한다. 같은 기관에서 방문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만 했다면 좀 더 깊은 질문이나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기초가 깊고 튼튼해야 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듯이, 핵심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해야만 관련 산업의 진정한 발전과 고용창출이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요즈음 핵심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불행히도 이렇다 할 구체적 추진 실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일본에서 방문한 한 연구소에서 이같은 우리의 문제점의 원인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동일한 국내 연구기관에서 일본 연구소를 방문해도 전임자나 후임자가 비슷한 자료요청이나 질문을 하고 있다"면 언제 우리는 핵심 기술의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겠는가?

요즈음 국내에서 GNP 20,000\$진입을 위한 구체

적 추진 방안들에 관한 얘기들이 단발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다찬가지겠지만, 개원이나 전문 인력의 제한이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재원과 인력의 유기적 활용 효율 극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간에 연구개발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혹,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인계 및 인수가 되더라도 "같은 자료와 질문"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불행히도 국내에 지방마다 특성화 사업들을 많이 진행시키는 현 시점에서조차 이러한 과오는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 이미 타 지역의 연구소나 학교에서 유사한 연구를 지금껏 수행해 오면서 기초를 다져온 "전문가 집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지방 특화사업의 큰 예산을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업단"에서는 새롭게 또 독자적으로 유사한 기초 기반을 닦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행히도 모두가 너무 잘나서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지금까지 앞서서 좀 기반을 다져온 "전임자"들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후임자"들이 너무 없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낭비이며 한정된 전문 인력들의 유용이다.

향후, 우리가 진정 선진국을 향하여 진전을 원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지원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똑같은 질문과 자료요구"의 반복을 피하는 노력을 더욱 해야 할 것이다. **표준**